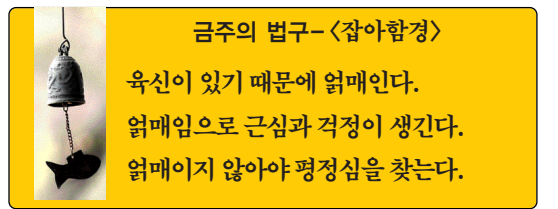


중로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
성 꼬집어 내는 방법...
우회법과 직入
6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4월 1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46호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거리 연등, 이제는 '친환경 시대'

서울 사찰·거리 LED연등 1만개 이상 증가 '눈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시내 사찰과 주요 거리에 설치된 연등 가운데 LED조명을 활용한 연등이 올해 들어 1만개 이상 대폭 증가했으며, 그중엔 햇빛으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태양광 연등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광화문과 청계천 주변, 인사동, 삼정동, 북촌 등에 설치된 연등 4,000여개를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등에서 친환경 고효율 LED 전구로 교체하고, 사찰마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불 밝히는 태양광 연등도 555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서울시는 지난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원전 하나줄이기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주요문화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서울시는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그리고 인사동에서 삼정공원까지 거리의 총 8000

여개 연등 중 절반인 4000여개 연등을 기존 백열전구(10W)에서 LED등(3W)으로 올해 교체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LED기업과 불교계의 만남을 주선해 야외에 설치하는 연등에 10W 백열전구 대신 사

인사동 등 4000개 거리 연등

백열등에서 LED로 전면 교체

요금 걱정없는 태양광 연등도

도심 사찰에 증가 추세

용할 수 있는 LED 전구가 개발·채택되도록 제안했는데, 이번에 3W LED 전구로 교체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전력소비를 70% 줄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청계천에서 진행 중인 '전통 등 전시회'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LED 조명의 다양한 장점을 적

극 알리고 있다.

LED 전구는 별래가 좋아하는 자외선을 발산하지 않아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고, 발열량이 적어 조명이래 진열된 상품의 신선도를 장시간 지켜준다. 수은을 쓰지 않아 인체에 해가 없으며,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친환경 조명이다.

반면, 백열전구는 소비하는 전력의 95%를 열로 만들고 단지 5%만 빛을 내는 데 쓰는 비효율적인 조명이며, 더운 여름철엔 주위 온도를 올리는 난로 역할을 해 냉방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게 한다.

또한, 백열전구는 사용시간이 약 1,000시간임에 비해 LED 전구는 약 25,00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 수명이 최대 25배까지 길다.

전기요금 걱정 없는 '햇빛발전 LED 연등'도 확산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내 정각원, 강서구 화곡동 보광사, 종로구 평창동 삼각사 등에는 설치한 총 5550개의 태양광 LED 연등은 햇빛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

기로 불빛을 밝히고 있다.

태양광 LED 연등은 낮에 햇빛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지와 조도센서가 장착돼 있어 밤에는 자동으로 켜지고 주변이 밝아지면 저절로 꺼진다.

사찰 내에 모든 연등을 태양광 LED 연등으로 바꾼 종로구 평창동 삼각사 주지 성해 스님은 "전원공급을 위한 수십미터의 전선을 연결하던 기존 연등과 비교하여 태양광 연등은 따로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어 설치와 관리가 한결 편하다"며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던 기존 백열전구와 달리 4~5년을 사용할 수 있어 태양광 LED 연등이 훨씬 경제적인 데다 햇빛으로 충전된 LED조명의 불빛이 밝고 선명하여 아름답다"고 말했다.

정회정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불교계와 협력하여 매년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연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 전구로 교체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모든 연등 및 사찰 내 조명을 LED로 바꿀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가 5월 19일 조계사에서 개최한 제1급 법계 품서식에서 스님들이 가사를 정대하며 불교종흥을 서원하고 있다.

"불조 혁명 이어 종단발전에 앞장 설 것"

조계종 1급 법계 품서식 개최...종덕·현덕 54명 품서

조계종 1급 법계인 종덕·현덕 법계에 대한 품서식이 봉행됐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고산)는 5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현덕 법계 품서식을 열고 비구 스님 28명, 비구니 스님 26명 등 총 54명의 스님들에게 법계를 전했다. 이날 법계를 품서받은 스님들은 지난 4월 조계종 최초로 열린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이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수행자가 본분사에 충실할 때 중생의 귀감이 되고 만민을 바

른길로 인도 할 수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자비원력으로 중생구제를 발원해 이장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덕과 현덕법계는 종단 핵심이자 지도자 자격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법계"라며 "수행과 정진, 그리고 전법교화를 통해 한국불교 종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계 품서식에서는 스님들을 대표해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선응 스님과 총무원 재무국장 우하 스님이

법계를 받았다. 이어 교학국장 선응 스님을 대표로 전법도생과 불교종흥, 종단발전을 서원하는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에 법계를 품서받은 스님들은 자필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재산의 종단 출연 등을 약속했다. 법계는 스님들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자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으로 종덕과 현덕 법계는 교구본사 주지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글·사진=노덕현 기자**

수좌 스님 80%, "노후걱정에 수행 장애"

선원수좌복지회 '수좌 스님 수행과 복지' 세미나서

노후대비 스님 25% 불과 대비비율 62%가 재원부족

선원 수좌스님들 대부분이 노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노후대비를 하는 스님들은 25%에 불과해 종단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수좌복지회(대표이사 의정)가 5월 6일 동국대 강강당에서 '수좌스님들의 삶과 수행, 그리고 복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선원수좌복지회가 2014년 7월 하안거 결

제대중 8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자 대부분(96.1%)이 노후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2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노후대비가 미흡한 이유로는 재원부족이 61.9%로 꼽혔다. 이러한 노후걱정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밝힌 스님들도 79.9%에 달했다.

수좌 스님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의료비지원(59.6%)과 원로 수좌 스님의 주거안정(35.7%) 해제 시 거처(32.3%)로 나타났다. 몸이 아프거나 정주할 곳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 복지에 대한 요구는 연령대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수좌 스님 중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스님들은 29.6%에 불과했다. 외병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비 부담(49.0%)로 꼽혔다. 의료비 부담 등으로 증상이 심할 때만 병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57.7%에 민간요법을 활용하거나(14.7%), 치료조차 하지 않고 견디는 스님도 9.2%에 달했다.

박 교수는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현재 소득 수준으로 수좌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의료기관과 협력해 일반인과 분리된 스님들만의 치료공간을 확보하거나, 암,

중대질환 치료를 위한 보장방안을 민간보험사와 공동으로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사찰 경내 혹은 인근에 수행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노후 거처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다.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다른 만큼 질병치료 시 거처하게 될 양치에 대한 수요도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노후 거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의 '해의승가 수행공동체 체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수좌형 출가자의 삶과 사회보장형 수행지원 체계'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韓日불교, 청소년 교류 방안 논한다

한일불교교류대회 6월 8~10일 용주사 일원서

한일 관계가 경제 국면인 가운데 양국 불교계가 청소년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는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화성 용주사 일원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 제36차 대회'를 개최한다.

'한일 청소년 문화 교류를 통한 유대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양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6월 8일에는 수원 노보텔 엠베서 더 호텔에서 환영만찬이 진행되며 본행사인 평화기원법요식과 학술대회는 6월 9일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측 발제자로 김용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가, 코야마 테유 대정대학 불교학부 교수가 일본 측 발제자로 각각 나선다. 발표 이후 양국 불교계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일본의 과거사 참회가 담긴 30주년 기념비(여주 신륵사 조성) '인류화합공

생기원비'를 참배하게 된다. 또한 진각종 통리원을 방문해 한국 밀교의 현황을 살펴볼게 된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1977년 1차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주제를 채택해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양국 불교도들의 교류와 우호를 증대하는 평화기원법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사령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박아름
2015년 5월 26일 부
이상 1명



BORYEON
전화 031)526-2201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불자기업 보련기획에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보련기획을 이용해주시는 스님 및 불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련기획 임직원 일동